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for June 14th.

TV프로그램 15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for June 15th.

TV프로그램 16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for June 16th.

SM, 엑소 멤버 3명에 '계약 이행' 소송... "매출 10% 지급하라"

SM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작년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다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4일(음 5월 9일 己酉) ☎ 010-9790-8237

급하기로 하고 작년 6월 갈등을 봉합했는데, 첸백시 측이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키오가 수수료율 5.5%를 적당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36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48년생 외형만 근사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60년생 노파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2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84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96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08, 91

37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9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61년생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73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85년생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97년생 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92

38년생 막대한 바가 시원하게 뿜릴 것이다. 50년생 자제한다면 기가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62년생 취약점을 보완해 두지 않으면 연세적인 붕괴를 면할 길이 없다. 74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86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98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행운의 숫자 : 72, 66

39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51년생 길조가 솟아나면서 만사여의하리라. 63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활로가 트이게 된다. 75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87년생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99년생 망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9, 67

40년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갈 것이다. 52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64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76년생 앞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88년생 당면 과제에 매진함이 기쁨을 줄 것이다. 00년생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형태로 정립되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12, 58

41년생 기쁜 일을 맞이함으로써 인해 신명날 것이다. 53년생 객관적으로 살펴 보아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65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77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89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용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01년생 난제를 잘 수습해야만 하는 형국이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2

42년생 별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4년생 평소 애 잘 관리해 두었다면 지금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다. 66년생 기다려 왔던 것은 들어오지만 쓸 곳은 더 많으리라. 78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90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02년생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5, 54

43년생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55년생 지난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67년생 충동의 폐해는 의외로 대단할 수 있느니라. 79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91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 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03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행운의 숫자 : 04, 69

44년생 다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56년생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하는 이치를 알라. 68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80년생 지나간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92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04년생 전혀 개의치 말라. 행운의 숫자 : 27, 55

45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57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69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81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93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5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37, 72

46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58년생 겉과 속이 확란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70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82년생 굳이 표하지 않아도 모두를 공감하고 있다. 94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06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29, 73

47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47년생 주홍라도 탄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71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웃대들 갖고 밀어붙여라. 83년생 예방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95년생 확연한 차이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16, 59